

2025. 11. vol.67

전북 청년의 결혼·출산·양육의 인식과 정책 방향

연구책임 | 이주연 책임연구위원

연구진 | 최지훈 연구원



2025 정책브리프 POLICY BRIEF

※ 이 자료는 기초과제로 수행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및 정책 수요조사 연구”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전북 청년의 결혼·출산·양육의 인식과 정책 방향

요약

청년층의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 조사의 필요성 및 중요성

- 전북의 초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출산율 반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청년층의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핵심 요인으로 지목됨.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양육에 대한 변화하는 인식 파악은 현재와 미래 사회의 인구구조, 인구정책, 복지제도, 고용 및 주거 정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이자 정책 방향 설정의 출발점이 됨
- "왜 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면 할 수 있는가", "무엇이 장벽이 되는가" 등에 대한 청년층의 정확한 인식과 수요 파악이 우선되어야만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해짐

전북자치도 청년의 결혼·출산·양육의 인식 수준

- (결혼에 대한 인식) 결혼에 대한 인식은 긍정이 72.2%로 였고,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미혼 남성 32.9세, 여성 31.2세로 나타남.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은 59.4%(지금 결혼하고 싶다 20.7%,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 38.7%)로 여성이 남성 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음
 - 결혼 의향은 있으나 현재 미혼인 이유는 남녀 모두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38.5%)'가 가장 많았고,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주거비용 지원(27.9%)'과 '만족할 만 한 일자리 확충(26.0%)'으로 나타남
-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긍정응답은 70.1%이며, 이상적인 자녀 수는 1.82명임. 미혼 청년의 38.7%는 자녀 출산 의향이 없었고 이에 대한 주요 이유는 '임신·출산·양육이 어렵게 느껴져서(21.8%)', '양육·교육비 부담 때문에(16.1%)', '일·가정 양립이 어려울 것 같아(12.7%)' 등으로 나타남
 - 유자녀 기혼 청년의 15.7%만이 추가 출산 의향이 있었고, 추가 출산 의향에 부정적인 이유는 '출산 비용 및 양육·교육의 경제적 부담(28.8%)'과 '임신·출산·양육의 어려움(18.8%)'으로 나타남. 기혼 청년의 25.3%는 임신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 중 26.1%는 결혼 후 1~2년 내 난임 진단 받음. 난임시술(검사) 시 심리·정서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 순으로 힘들어함
- (양육 및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 10명 중 8명은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육아를 위한 시간 확보(47.8%)', '육아지원제도 및 유연근무제 활용에 대한 사회(직장) 분위기 조성(25.5%)' 등이 나타남. 일·가정양립 제도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제도사용으로 인한 급여 삭감 최소화(24.7%)', '업무 대행자의 보상 강화(23.1%)' 등이 도출됨

- (저출생 인식 및 정책 수요) 응답 청년 대부분은 “전북의 저출생 현상”을 ‘심각하다’로 인식(평균 7.56점)했고, 현 거주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평가는 4.83점(10점 만점), 보통 이하 수준으로 낮게 평가함. 저출생 원인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직장문화(25.8%)’, ‘양질의 청년 일자리 부족(22.1%)’, ‘높은 주거비 부담(14.5%)’ 순으로 봄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 정책으로 ‘안정적 일자리 확충(20.4%)’, ‘내집마련지원(18.7%)’, ‘일·양육 병행지원(15.7%)’을 요구했고,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포털’을 통한 정책 홍보를 가장 많이 선호함

전북 청년층 인식·수요를 반영한 저출생 대응 정책 방향

- 전북 청년층의 결혼 및 임신·출산과 양육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청년의 결혼 접근성 제고 및 관계 형성 지원, 둘째, 안정적 일자리와 주거 기반 마련을 통한 결혼과 출산 여건 개선, 셋째, 양육 및 돌봄 지원 확대와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 넷째, 생애주기별 생식건강 및 임신·출산 지원 체계 강화, 마지막으로 성평등한 양육 환경 조성 및 다양한 가족 형태의 사회적 수용도 제고 등 5대 정책 방향과 각 정책 방향별 세부 과제들을 제시함

1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의 중요성과 필요성

❖ 초저출생과 인구감소 심화 속에서 청년층의 결혼·출산·양육의 인식 변화가 핵심 요인으로 지목

- 전북도는 '16년 인구 데드크로스 이후 '19년 합계출산율이 0.97명 이하로 하락하면서 초저출생과 인구 감소가 고착화됨. 이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음
- 저출생 위기와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재정적 지원만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은 출산율 반등에 한계가 있음. 초저출생을 야기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청년층의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등 인식의 변화가 지목되고 있음
- 이에 결혼과 임신·출산 및 양육의 핵심 세대인 청년층의 실질적인 가치관(의향)과 태도 등의 변화되고 있는 인식과 정책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고서는 정책 방향이 모호해지고, 비효율적이거나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청년층의 결혼과 임신·출산 및 양육에 대한 변화되는 인식 파악은 현재와 미래 사회의 인구구조, 인구정책, 복지제도, 고용(일자리) 및 주거 정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이자 방향 설정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음

❖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년층의 인식과 정책 수요 파악 필수

- 기존 정책 대비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결혼, 임신·출산 및 양육에 대한 변화하는 인식 조사를 통해 청년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회피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결혼·임신출산·양육을 고려할 수 있는지 등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인식 파악은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오늘날 결혼과 임신·출산은 개인의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가나 사회가 강제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음. 이에 "왜 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면 할 수 있는가", "무엇이 장벽이 되는가" 등에 대한 청년층의 정확한 변화된 인식과 수요 파악이 우선되어야 함
- 인식 조사를 통해 지역별 청년층의 목소리를 파악할 수 있고, 청년층의 실제 욕구에 부합하는 선택 가능한 정책과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음
- 청년층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된 정책은 청년층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쉽고, 정책 수용성과 만족도가 높아지며 나아가 정책의 설득력을 강화하여 실제 정책 참여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정책의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합의 형성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또한, 지역별(도시·농촌), 성별, 혼인여부별, 계층별 등 서로 다른 조건과 환경에 놓여 있는 다양한 청년층에 대한 정책적 수요의 미세한 차이를 포착하여 차별화된 정책 접근과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2

전북자치도 청년의 결혼·출산·양육의 인식 수준

🔍 조사 개요

- 전북에 거주하는 만 20~44세 남녀 청년 1,049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온라인조사로 인식조사 실시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의 청년 연령은 18~39세이나, 2023년 기준 전북 청년의 초혼연령(남성 34.6세, 여성 31.0세)과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33.03세) 및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 범위를 20세부터 44세까지로 정의하여 살펴봄

[표 1]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 도내 거주 1981년 ~ 2005년생(만20~44세) 남녀
조사 지역	• 전북자치도 14개 시·군
조사 규모	• 총 1,049명 (95%신뢰수준 ± 2.2%p)
조사 기간	• '25.2.10. ~ '25.2.14.(5일간)
조사 방법	• 구조화된 모바일·온라인 설문조사(자기기입식 웹조사)

🔍 인식 조사의 주요 결과

[1] 결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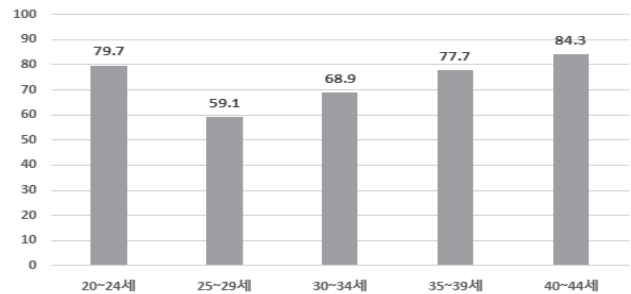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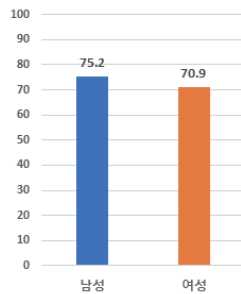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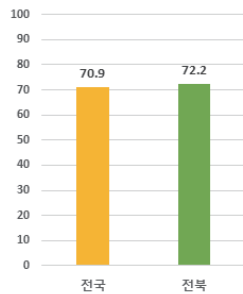
- (결혼에 대한 전반적 인식) 긍정 72.2%, 부정 27.8% *전국의 경우 긍정 70.9%, 부정 29.1%
 - 여성보다 남성, 미혼보다 기혼 응답자가 더 긍정적 인식
 - 20대 초반은 긍정적 인식이 79.7점으로 높다가 20대 중후반 급격하게 낮아짐. 30대 초반부터 점진적으로 긍정적 인식이 다시 높아지면서 40대 초반이 되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전북 청년의 결혼·출산·양육의 인식과 정책 방향

[표 2]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단위: %, 점)

구분	부정응답			긍정응답			사례수	평균
	매우부정	부정	소계	긍정	매우긍정	소계		
전국	5.8	23.3	29.1	58.2	12.7	70.9	2,011	2.8
전북	5.5	22.3	27.8	52.8	19.4	72.2	1,049	2.9
_ (남성)	4.8	20.1	24.8	50.3	24.8	75.2	314	2.95
_ (여성)	5.9	23.3	29.1	53.9	17.0	70.9	735	2.82
_ (기혼)	1.1	8.0	9.1	58.2	32.7	90.9	364	3.23
_ (미혼)	7.9	29.9	37.8	49.9	12.3	62.2	685	2.67
_ (20~24세)	2.9	17.4	20.3	52.2	27.5	79.7	69	3.04
_ (25~29세)	10.1	30.8	40.9	45.2	13.9	59.1	208	2.63
_ (30~34세)	6.6	24.6	31.1	51.1	17.7	68.9	350	2.80
_ (35~39세)	3.5	18.7	22.3	58.7	19.1	77.7	283	2.93
_ (40~44세)	1.5	14.2	15.7	55.2	29.1	84.3	134	3.12



〈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

○ (이상적인 결혼 연령) 미혼 청년은 이상적인 결혼연령을 남성 32.9세, 여성 31.2세로 봄

- 2024년 통계청 기준 전북 청년의 초혼 연령은 남성 33.9세, 여성 31.2세로 특히 남성의 결혼연령이 인식과 실제(현실) 간의 차이를 다소 보임

○ (결혼 의향)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하고 싶다)이 있거나 계획 중인 경우는 59.4%

* '지금이라도 결혼하고 싶다' 20.7%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결혼하고 싶다' 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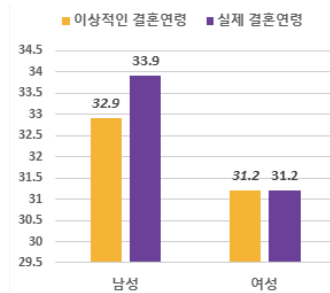
- '현재도 앞으로도 결혼하고 싶지 않다' 19.1%로 남성(15.2%)에 비해 여성(21.1%)이 결혼 의향이 낮았음
- 20대 초반에 결혼 의향이 가장 높다가 취업시기인 2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낮아지고, 30대에 다시 결혼의향이 증가하여 30대 중·후반에 정점 기록

전북 청년의 결혼·출산·양육의 인식과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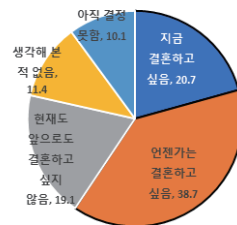
[표 3] 미혼 청년의 향후 결혼 의향

(단위: %)

구분	지금이라도 결혼하고 싶음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결혼하고 싶음	현재도 앞으로도 결혼하고 싶지 않음	생각해 본 적 없음	아직 결정하지 못함
_(남성)	32.2	36.5	15.2	7.8	8.3
_(여성)	14.9	39.8	21.1	13.2	11.0
_(20~24세)	11.6	56.5	10.1	10.1	11.6
_(25~29세)	14.1	42.9	21.2	11.6	10.1
_(30~34세)	20.5	37.8	19.7	12.0	10.0
_(35~39세)	34.8	28.1	20.0	10.4	6.7
_(40~44세)	25.0	20.8	16.7	12.5	25.0



〈이상적 결혼연령과 실제 결혼연령〉



〈미혼 청년 남녀의 결혼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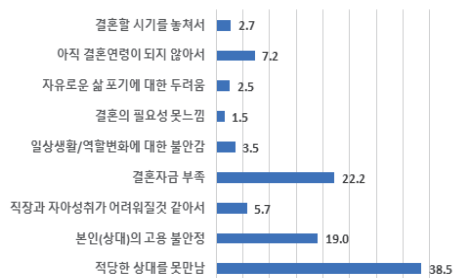
○ (결혼 의향이 있으나, '현재 미혼인 이유') 남녀 모두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38.5%)'가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결혼에 필요한 자금 부족(22.2%)', '본인(상대)의 고용불안정(19.0%)'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여성은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의 비중이, 남성은 '고용불안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결혼 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 '결혼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21.2%로 가장 많았음

* '결혼하면 직장과 자아 성취가 어려울 것 같아서'와 '일상생활과 역할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각각 16.2%로 나타남



〈결혼 의향이 있으나 현재 미혼인 이유〉



〈결혼 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

전북 청년의 결혼·출산·양육의 인식과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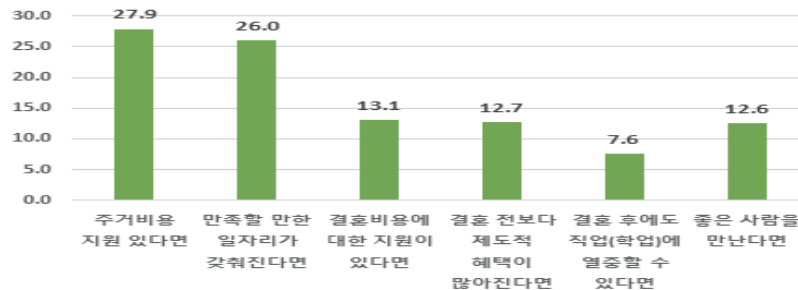
○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건) ‘주거비용 지원(27.9%)’과 ‘만족할 만 한 일자리 (26.0%)’ 나타남

- 남성은 주거비용이 지원되면, 여성은 만족할 만한 일자리가 갖춰진다는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
- 연령대별로 20대는 만족할 만한 일자리, 30대는 주거비용 지원, 40대는 좋은 사람 만남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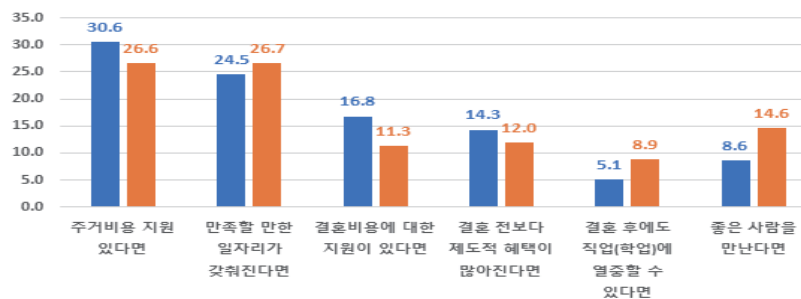
[표 4] 다음이 조건이 더해졌을 때 결혼 의향 향상(중복선택)

(단위: %, 명)

구분	주거비용 지원이 있다면	만족할 만한 일자리가 갖춰진다면	결혼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다면	결혼 전보다 제도적 혜택이 많아진다면	결혼 후에도 직업(학업)에 열중할 수 있다면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전북	27.9	26.0	13.1	12.7	7.6	12.6
_ (남성)	30.6	24.5	16.8	14.3	5.1	8.6
_ (여성)	26.6	26.7	11.3	12.0	8.9	14.6
_ (20~24세)	22.7	31.3	5.5	12.5	8.6	19.5
_ (25~29세)	27.5	29.4	8.2	11.0	9.6	14.3
_ (30~34세)	28.6	24.1	15.9	14.9	6.7	9.8
_ (35~39세)	31.3	22.5	19.3	11.6	6.0	9.2
_ (40~44세)	20.0	22.5	10.0	10.0	7.5	30.0



〈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



〈 성별에 따른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

[2]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

○ (자녀의 필요성) ‘자녀는 있어야 한다’는 긍정 응답 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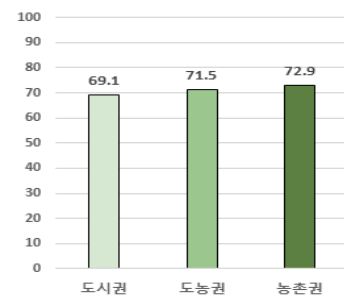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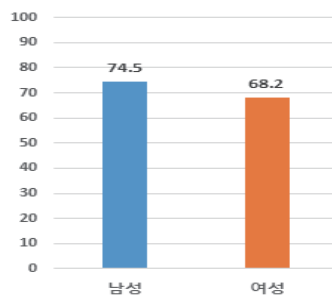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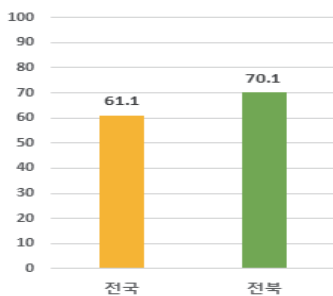
*전국의 경우 긍정응답 61.1%

- 도시권 대비 농촌권의 긍정응답 높음. 여성보다 남성이, 35세 이상 집단에서 긍정응답 높음

[표 5] 자녀는 있어야 한다

(단위: %, 점)

구분	전적으로 반대	약간 반대	긍정응답			평균
			약간 동의	전적으로 동의	소계	
전국	9.6	29.3	42.2	18.9	61.1	2.7
전북	6.5	23.5	43.1	27.0	70.1	2.9
_(도시권)	6.1	24.8	45.7	23.4	69.1	2.86
_(도농권)	6.0	22.5	39.8	31.7	71.5	2.97
_(농촌권)	9.9	17.1	34.2	38.7	72.9	3.02
_(남성)	7.6	17.8	42.7	31.8	74.5	2.99
_(여성)	6.0	25.9	43.3	24.9	68.2	2.87
_(20~24세)	7.2	26.1	39.1	27.5	66.6	2.87ab
_(25~29세)	8.2	30.8	43.3	17.8	61.1	2.71a
_(30~34세)	7.4	26.9	42.0	23.7	65.7	2.82ab
_(35~39세)	6.0	18.7	47.3	27.9	75.2	2.97b
_(40~44세)	2.2	11.9	39.6	46.3	85.9	3.30c



〈 ‘자녀 있어야 한다’의 응답 〉

전북 청년의 결혼·출산·양육의 인식과 정책 방향

○ 이상적인 자녀 수는 1.82명,

*2명 57.5%, 1명 30.8%, 3명 이상 11.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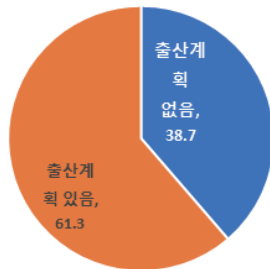
- 농촌권 1.98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성(1.87명)이 여성(1.79명)보다 높았음

[표 6] 이상적인 자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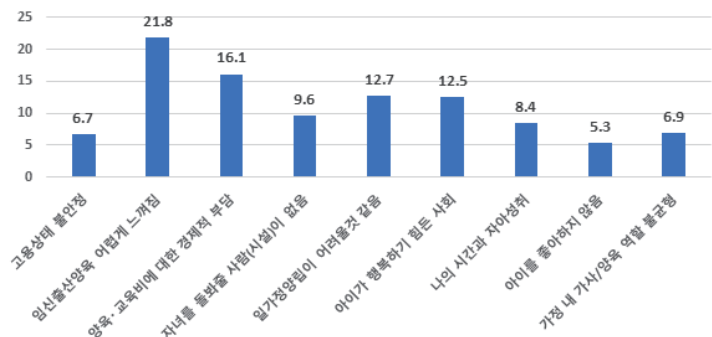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1명	2명	3명 이상	4명	평균
전북	30.8	57.5	10.7	1.0	1.82
_(도시권)	33.4	57.5	7.8	1.3	1.77
_(도농권)	28.4	55.7	15.9	0.0	1.88
_(농촌권)	21.0	61.7	16.0	1.2	1.98
_(남성)	26.5	61.1	11.5	0.9	1.87
_(여성)	32.9	55.8	10.3	1.0	1.79

○ 미혼 청년의 38.0%는 자녀 출산계획 없음. 주요 이유는 임신·출산·양육이 어렵게 느껴져서(21.8%)*, 양육·교육비 부담 때문에(16.1%)*, '일·가정양립이 어려울 것 같아(12.7%)*' 등으로 나타남



〈 미혼청년의 출산의향 유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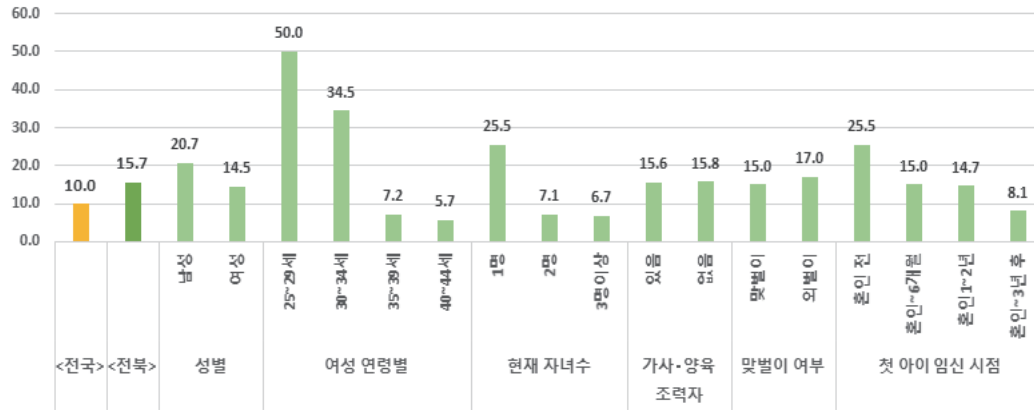
〈 출산계획이 없는 주된 이유 〉

○ (추가 출산 의향) 자녀있는 기혼 청년의 15.7%만이 추가 출산의향 있음. 추가 출산의향에 부정적인 이유는 '출산 비용 및 양육·교육의 경제적 부담(28.8%)*'과 '임신·출산·양육의 어려움(18.8%)*'으로 나타남

- 남성이 여성보다 추가 출산 의향이 높고, 여성은 특히 35세에 진입하면서 추가 출산 의향이 급감함

- 첫 아이 임신 시점이 빠를수록 추가 출산 의향이 높게 나타남

전북 청년의 결혼·출산·양육의 인식과 정책 방향



〈 전북 기혼 유자녀 청년의 추가 출산의향 〉

○ (임신의 어려움 경험) 기혼청년 중 ‘임신어려움의 경험’ 비율은 25.3%, 이 중 26.1%는 결혼 후 1~2년 내 난임 진단 받음

- 난임 시술(검사) 시 심리·정서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 순으로 힘들어 함
- 난임 경험은 농촌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난임시술(검사) 경험 부재 비율도 높게 나타남. 농촌권 거주 청년의 난임은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난임 대응(난임 진단, 시술 등)이 도시권 대비 소극적이었음

[표 7] 기혼 응답자의 난임 관련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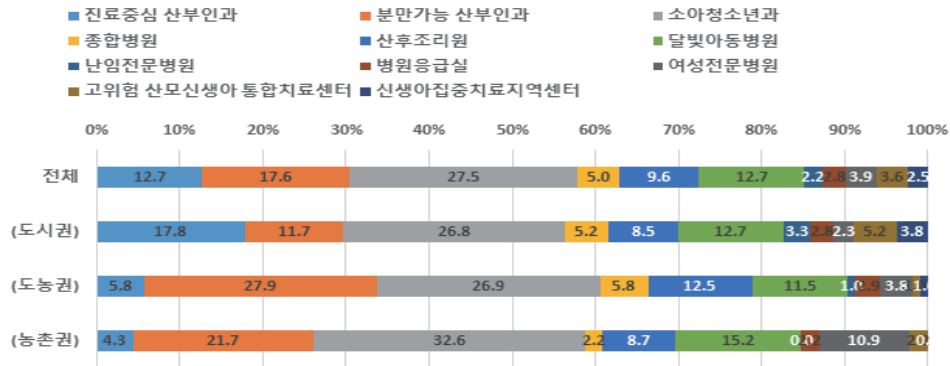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난임 경험 있음	난임 경험 있는 경우, 난임진단 시기						난임시술 경험 있는 경우, 힘들었던 점				
		결혼 후 1년 미만	결혼 후 1~2년 미만	결혼 후 2~3년 미만	결혼 후 3~5년 미만	결혼 후 5년 이후	검사 경험 없음	경제적 부담	심리·정서적 고통	신체적 고통	난임전문 병원 부족	직장 관련 어려움
전북	25.3	8.7	26.1	4.3	3.3	2.2	55.4	23.8	45.2	7.1	9.5	14.3
도시권	26.6	8.8	28.1	7.0	5.3	3.5	47.4	19.4	51.6	6.5	9.7	12.9
도농권	18.3	10.5	21.1	0.0	0.0	0.0	68.4	20.0	20.0	20.0	20.0	20.0
농촌권	34.8	6.3	25.0	0.0	0.0	0.0	68.8	50.0	33.3	0.0	0.0	16.7
30~34세	16.5	6.7	26.7	0.0	6.7	0.0	60.0	50.0	50.0	0.0	0.0	0.0
35~39세	25.7	7.9	23.7	5.3	2.6	2.6	57.9	26.7	33.3	6.7	20.0	13.3
40~44세	34.5	10.5	28.9	5.3	2.6	2.6	50.0	17.4	52.2	8.7	4.3	17.4

○ (현 거주지역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임신·출산 시설)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가능 산부인과’로 나타남

- 농촌권은 ‘소아청소년과’, 도시권은 ‘진료 중심 산부인과’, 도농권은 ‘산후조리원’ 확충이 상대적으로 높았게 나타남

전북 청년의 결혼·출산·양육의 인식과 정책 방향



〈 지역 내 가장 우선적으로 확충이 필요한 임신·출산 시설 〉

[3] 양육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

○ (어린이집 적정 이용 시기) 어린이집 이용은 '돌 이후가 적당하다(32.7%)' 인식

- 성별로 남성이 여성보다 이른 시기에 어린이집 이용을 원했고, 연령대별로는 일·가정 양립의 최정점에 있는 30대에 어린이집 이용 시기가 가장 빠르게 나타남

○ (자녀 양육의 평가) 10명 중 8명은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

- 도시권 대비 농촌권이 자녀 양육의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높았고, 남성보다 여성이, 미혼보다는 기혼 응답자(93.0%)가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부족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적함

[표 8] 자녀 양육을 위한 국가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구분	충분	부족	⇒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부족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부족	원하는 돌봄서비스 부재	이용하는 돌봄 시설과 서비스 마음에 들지 않음	직장 일 병행에 따른 맞춤형 돌봄 부재
전북	20.1	79.9	35.8	29.9	13.2	5.4	15.7
_(도시권)	22.3	77.7	39.6	29.9	13.6	3.5	13.4
_(도농권)	17.3	82.7	32.5	32.0	12.6	4.9	18.0
_(농촌권)	12.6	87.4	21.6	25.8	12.4	16.5	23.7
_(남성)	23.2	76.8	35.7	26.1	13.3	6.6	18.3
_(여성)	18.7	81.3	35.8	31.4	13.2	4.8	14.7
_(기혼)	11.8	88.2	33.6	28.7	13.4	5.6	18.7
_(미혼)	24.5	75.5	37.1	30.7	13.1	5.2	13.9
_(무자녀)	7.0	93.0	39.4	31.8	10.6	1.5	16.7
_(유자녀)	13.0	87.0	32.2	27.8	14.1	6.7	19.2

전북 청년의 결혼·출산·양육의 인식과 정책 방향

○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필수조건) ‘근무시간을 줄이고 육아를 위한 시간 확보(47.8%)’, ‘육아지원제도 및 유연근무제 활용에 대한 사회(직장) 분위기 조성(25.5%)’ 순으로 나타남

-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무시간 줄이고 자녀 돌봄 시간 확보(50.6%)’, ‘육아지원제도·유연근무제 활용에 대한 직장 분위기 조성(22.9%)’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일·가정양립을 위한 필수조건 〉

○ (육아휴직제 이용률) 유자녀 응답자의 48.1%만이 이용함

- 육아휴직제도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 ‘회사 사정상 사용이 어려워서(35.9%)’가 가장 높았고, ‘육아휴직 기간 소득 감소(29.7%)’, ‘직장 내 눈치 등 조직문화(12.4%)’ 순으로 나타남

[표 9] 육아휴직제도 경험률과 사용하지 못한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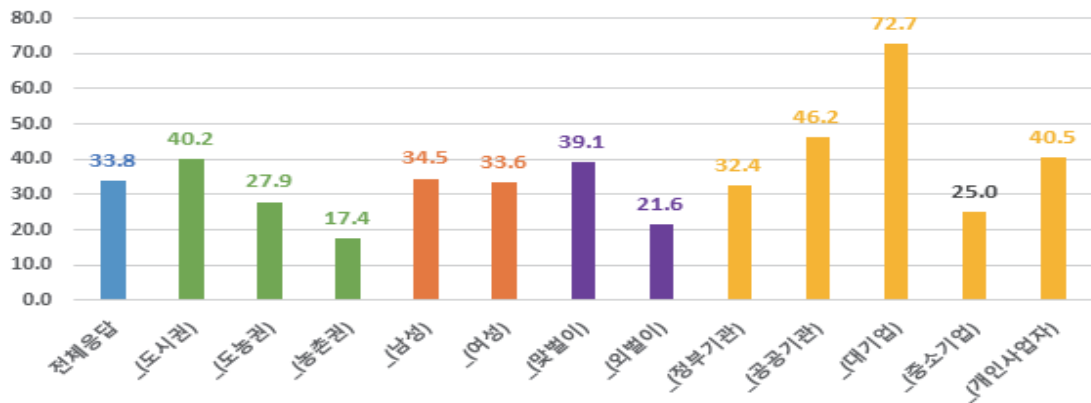
구분	육아휴직제도 경험률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						
		소득감소	동료에게 폐를 끼칠까봐	경력, 승진 등 불이익 염려되서	사내 눈치 등 조직문화	경력유지·개발 등을 위해	신청했으나 회사의 반려	회사 사정상 어려워서
전북	48.1	29.7	4.8	7.6	12.4	5.5	4.1	35.9
_ (남성)	43.1	30.3	9.1	12.1	27.3	3.0	3.0	15.2
_ (여성)	49.4	29.5	3.6	6.3	8.0	6.3	4.5	42.0
_ (맞벌이)	59.1	23.7	7.9	6.6	13.2	6.6	2.6	39.5
_ (외벌이)	27.0	36.2	1.4	8.7	11.6	4.3	5.8	31.9

전북 청년의 결혼·출산·양육의 인식과 정책 방향

○ (유연근무제 이용률) 유자녀 기혼자의 33.8%만이 유연근무제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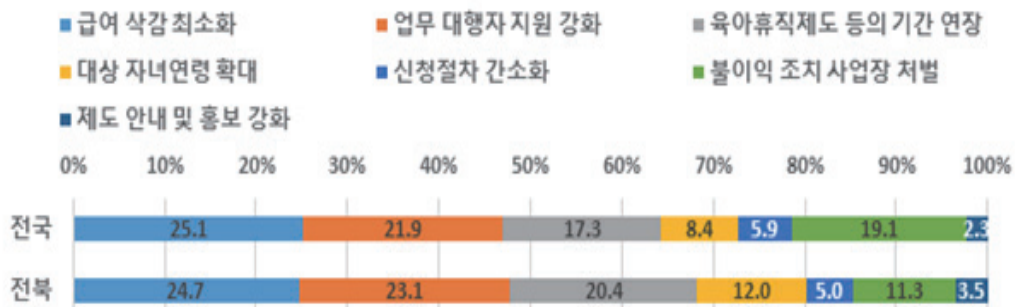
*'24년 기준 전국 유연근무제 이용률 15.0%(약 3,328명), 정규직 20.1%, 비정규직 6.9%(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

- 유연근무제도 중 '시차 출·퇴근제'와 '근무시간 선택제'가 이용이 가장 많았고, 직장유형별로는 대기업(72.7%)이 가장 높고 중소기업(25.0%)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유연근무제 이용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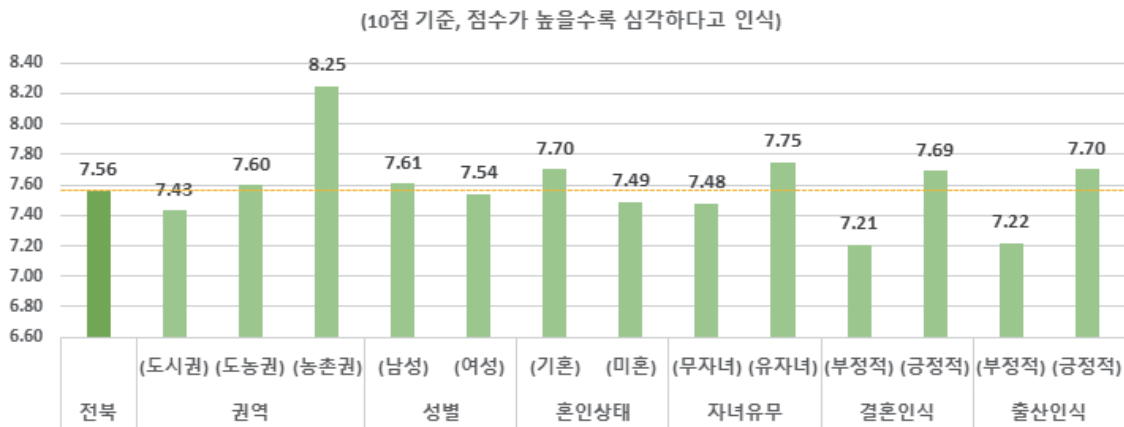
○ (일·가정양립 제도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 '제도사용으로 인한 급여 삭감 최소화(24.7%)', '업무 대행자의 보상 강화(23.1%)' 등 요구



[4] 저출생 인식 및 정책 수요

○ (저출생 현상에 대한 인식) 응답 청년층 대부분은 “전북의 저출생 현상”을 ‘심각하다’ 인식(평균 7.56점)

- 특히, 농촌권 청년의 저출생 현상 인식 수준은 8.25점으로 지역의 저출생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 전북 저출생 현상에 대한 인식 수준 〉

○ (저출생 대응 평가) 현 거주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평가는 4.83점, 보통 이하 수준으로 낮음

- 저출생 대응 평가는 특히, 농촌권이 4.3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유자녀 집단에서 4.08점으로 가장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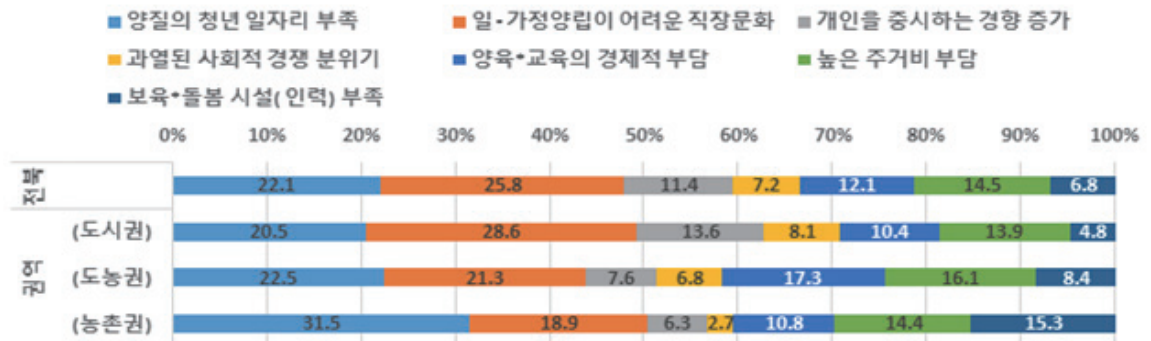


〈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에 대한 평가 〉

전북 청년의 결혼·출산·양육의 인식과 정책 방향

○ (저출생 원인)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직장문화(25.8%)', '양질의 청년 일자리 부족(22.1%)', '높은 주거비 부담(14.5%)' 순으로 봄

- 저출생 원인으로 도시권은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직장문화'를, 농촌권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부족'을 가장 많이 선택



○ (저출생 문제 해결 필요 정책) '안정적 일자리 확충(20.4%)', '내집마련지원(18.7%)', '일·양육 병행지원(15.7%)' 정책 요구

- 농촌권은 '질 높은 보육시설 확충', 남성은 '내 집 마련 지원', 여성은 '안정적 일자리 확충'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미혼의 경우는 '안정적 일자리 확충', 무자녀 기혼자의 경우는 '내 집 마련 지원' 응답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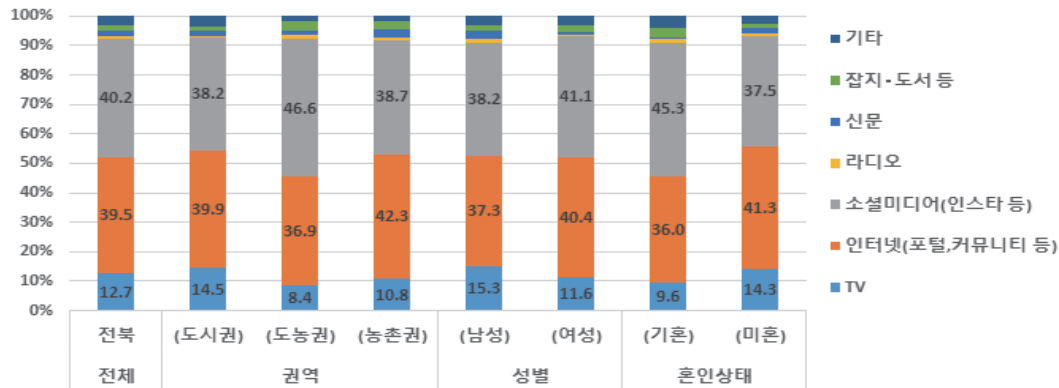
[표 10]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2개 선택)

(단위: %)

구분	안정적 일자리 확충	결혼지원 (작은결혼식, 만남 주선 등)	내 집 마련 지원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질 높은 보육시설 및 인력 확충	일과 양육 병행 지원	결혼/양육 위한 금전적 지원
전북	20.4	10.3	18.7	9.7	13.2	15.7	11.9
_(도시권)	20.5	10.6	18.5	10.6	12.9	16.2	10.6
_(도농권)	20.5	10.9	18.8	7.9	12.6	15.4	13.9
_(농촌권)	20.2	10.6	19.2	10.1	15.4	12.5	12.0
_(남성)	19.5	13.1	20.2	11.2	13.1	10.9	12.1
_(여성)	20.9	9.6	18.0	9.3	13.1	17.6	11.3
_(기혼)	19.5	5.3	19.1	7.4	14.5	17.1	17.1
_(미혼)	21.0	13.6	18.4	11.3	12.3	14.8	8.5
_(무자녀)	14.5	10.9	19.6	13.8	13.8	13.0	14.5
_(유자녀)	20.7	3.9	19.0	5.9	14.7	18.1	17.7

전북 청년의 결혼·출산·양육의 인식과 정책 방향

○ (효과적인 저출생 정책 홍보 방법)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포털’을 통한 정책 홍보를 가장 많이 선호



〈 효과적인 저출생 정책(사업) 홍보 방법 〉

○ (거주지역 전출 의향) 응답자의 단 17.0%만 이주 의향을, 83.0%는 지속 거주 의향을 밝힘

- 도시권(15.8%)보다 농촌권(20.7%)에서, 기혼(15.9%)보다는 미혼(17.5%)에서 전출 의향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이주 의향이 있는 응답자들의 주요 이주 의향 원인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40.4%)’, ‘문화·여가 인프라 부족(14.6%)’, ‘미흡한 교육환경(11.2%)’ 등을 꼽았음

[표 11] 현 거주지역 전출 의향

(단위: 명, %)

구분	지속 거주	전출의향	⇒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이유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의료 인프라 부족	보육 인프라 부족	문화·여가 인프라 부족	교육환경이 좋지 않음	높은 거주/생활비	직장(취업) 문제
전북	83.0	17.0	40.4	7.9	14.0	14.6	11.2	1.1	10.7
_(도시권)	84.2	15.8	44.0	9.2	11.0	11.9	10.1	1.8	11.9
_(도농권)	81.5	18.5	32.6	4.3	23.9	15.2	13.0	0.0	10.9
_(농촌권)	79.3	20.7	39.1	8.7	8.7	26.1	13.0	0.0	4.3
_(남성)	83.4	16.6	48.1	1.9	11.5	15.4	17.3	0.0	5.8
_(여성)	82.9	17.1	37.3	10.3	15.1	14.3	8.7	1.6	12.7
_(기혼)	84.1	15.9	22.4	8.6	24.1	5.2	31.0	0.0	8.6
_(미혼)	82.5	17.5	49.2	7.5	9.2	19.2	1.7	1.7	11.7

전북 청년의 결혼·출산·양육의 인식과 정책 방향

3

전북 청년층의 인식·수요를 반영한 저출생 대응 정책 방향

- 전북 청년층의 결혼 및 임신·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주요 정책 방향 다섯 가지와 정책 방향별 세부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청년의 결혼 접근성 제고 및 관계 형성 지원. 인식 조사 결과,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혼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적절한 상대 부재', '경제적 부담', '고용 불안정' 등 여러 요인들 중에서 '적절한 상대 부재'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적되었음. 이에 결혼 의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결혼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 과제) 결혼 준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계 형성 관련 소셜 네트워크 구축 등 청년 결혼 접근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및 공공시설 활용 결혼식 지원 확대, 예식에 대한 결혼 초기비용지원(스드메, 결혼 바우처 등) 사업 추진
- 둘째, 안정적 일자리와 주거 기반 마련을 통한 결혼과 출산 여건 개선.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주거비용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로 나타남. 경제적 안정성은 결혼과 출산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가져야 함
 - (세부 과제) 지역 맞춤형 청년 고용 창출 프로그램(지역특화 산업 연계 일자리, 창업지원 등),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및 대출한도 상향,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 완화 및 공급량 증대,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주거 지원 혜택 확대 등
- 셋째, 양육 및 돌봄 지원 확대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청년들은 자녀 양육에 대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설 부족', '맞춤형 돌봄서비스 부재', '육아 휴직과 유연근무제도 활용의 어려움'을 지적함. 이에 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세부 과제) 공공형 보육시설 지속 확충 및 야간·주말·긴급 보육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 다양화, 유연 근무제(시간 출근제, 재택근무, 선택근무제 등)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육아휴직제도 개선(소득 보전 강화, 기업 유인 인센티브 제공),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사례 공유 및 성공 모델 확산 등
- 넷째, 생애주기별 생식건강 및 임신·출산 지원체계 강화.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어려움(난임, 의료 인프라 부족, 출산비용 부담 등)이 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있음. 생애 전반에 걸친 재생산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
 - (세부 과제) 난임 검사 및 치료비 지원, 난임 전문 의료기관 지역 확충, 지역 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등

- 마지막으로, 성평등한 양육 환경 조성 및 다양한 가족형태의 사회적 수용도 제고. 양육의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불평등한 구조는 청년 여성의 출산 의향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성평등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함
 - (세부 과제) 신혼부부 및 예비 부모 대상 맞돌봄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확산, 미티어 캠페인을 통한 성평등한 육아와 가사 분담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 아빠 육아 모임·공동육아 품앗이 지원 등 남성 육아 참여 커뮤니티 활성화 등



2025

정책브리프

POLICY BRIEF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효자동3가 1052-1)
대표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발행인_전북연구원장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 정책브리프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정책브리프를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